

아quem주보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2025년 5월 4일(다해)
부활 제3주일(생명 주일)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
(요한 21,13)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 무 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 바 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 웨 이 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 타 르 묵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부활 제3주일(생명 주일)

오늘은 부활 제3주일이며 생명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믿음의 빛을 밝게 하시어, 교회 안에서 성사를 거행할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 뵈게 하십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 입당송 시편 66(65),1-2

• 제1독서

사도 5,27ㄴ-32.40ㄴ-41

• 화답송 시편 30(29),2와 4.5-6.11-12ㄴ과 13ㄴ(◎2ㄴㄴ 참조)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주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구하시어, 원수들이 저를 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님, 당신이 제 목숨 저승에서 건지시고, 구렁에 떨어지지 않게 살리셨나이다.◎

○ 주님께 충실한 이들과,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거룩하신 그 이름 찬송하여라. 그분의 진노는 잠시뿐이나 그분의 호의는 한평생이니, 울음으로 한밤을 지새워도, 기쁨으로 아침을 맞이하리라.◎

○ “들으소서,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의 구원자 되어 주소서.”
당신은 저의 비탄을 춤으로 바꾸시니, 주 하느님, 영원히 당신을 찬송하오리다.◎

• 제2독서

묵시 5,11-14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만물을 지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네.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21,1-19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희망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시어, 모든 사람이 노동 안에서 저마다 성취감을 얻고 가정의 품위를 지키며 인간적 사회를 이루어 가는 데 힘쓰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식과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사회 관계망을 잘 이해하고 민족적 종교적 편견에서 벗어나 화합을 이끄는 도구로 활용하게 하소서.

3. 생명 주일을 맞아, 생명 수호 봉사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이 땅의 생명 문화 건설을 위하여 애쓰는 이들에게 몸과 마음의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모두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치의 주님, 고국을 떠나 중동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아랍의 그리스도 신자들을 하나로 모으시어, 그 안에서 일치와 사랑의 본보기가 되고 부활의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 영성체송

요한 21,12-13 참조

[아캠] 아캠 상임 위원회 정기 회의



- ▶ 대 상 : 아캠 내 각 공동체 대표
- ▶ 일 시 : 5 월 3 일 (토) 20시 (UAE 기준)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으로 접속(회의 번호: 895 0419 9583, 비밀 번호: 1004)
- ▶ 안 건 : 1) 공동체 별 활동 보고 2) 성모성월 특강 등

[아캠] 온라인 성모성월 특강

- ▶ 일 시 : 5 월 17 일 (토), 16 시 (UAE 시간)
- ▶ 강 사 : 손은경 데레사 수녀님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아캠] 2025년 메주고리에 성지 순례 신청

- ▶ 일 정: 9월 12일(금) ~ 18일(목) / 6박 7일
- ▶ 인 원: 선착순 40 명
- ▶ 순례지: 메주고리에 및 주변 외곽 지역
- ▶ 예상 비용: 1 인당 \$1,200 (항공권 별도*)
- ▶ 접수 방법: 순례 담당 여행사인 '마리아투어'에 직접 신청 (mariatour121@gmail.com)
(항공권 구매 후, 신청서/ 여권 사본 첨부 메일 발송, 신청서는 사무국에 문의)
◆ 중요: 신청을 완료하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사무국으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황님 5월 기도 지향

5월: 노동 환경

노동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저마다 성취감을 얻고 가정이 품위를 유지하며 인간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쿠웨이트 공동체> 세례성사 및 첫영성체

‘김주완 그레고리오’의 세례와 첫영성체를 축하합니다~!!



4 월 25 일 3:00 pm



함께하며, 하나되며
중 동 한 인
AKCCME 가 톨 리
공 동 체
모 습 들

<두바이 공동체> 견진성사

‘허정열 아델라이데’ ‘백영아 효주아녜스’ ‘이은영 힐데가르트’
‘박경혜 마리안나’ ‘박순용 저스틴’ ‘안지은 엘리사벳’

견진을 축하합니다~!!



4 월 26 일 3:00 pm



과학 기술 시대의 인간 존엄성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요한 10,10)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반포하신 2025년 정기 회년의 선포 칙서 제목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Spes Non Confundit.)라는 말씀(로마 5,5)과 함께 회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 칙서에서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희망을 찾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징표들, 특히 “생명을 전달하려는 원의를 상실”(9항)한 이들도 희망을 발견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만큼 생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희망의 표징이면서, 우리 사회를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본질인 것입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지내는 열다섯 번째 생명 주일을 맞아, 인간의 존엄과 인류 공동체의 밑바탕이 되는 생명의 가치를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 발전된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물질적 한계를 점차 벗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지평을 새롭게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 지능 기술은 과학 기술의 놀라운 혁신과 질적인 변화를 뚜렷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인공 지능은 다른 기술 혁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널리 퍼지며,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열어 줄 최선의 기술적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간 창의력의 놀라운 산물”(『찬미받으소서』, 102항)이며, 우리 삶과 세상의 지평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 생명의 가치와 인간 존재의 의미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조작 기술과 합성 생물학의 발전은 질병 치료와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바지하지만 뜻밖의 돌연변이가 생기거나 생물학적 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과학 기술은 또한 윤리적 고찰과 책임 있는 기술 발전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학 기술이 단순히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발전하면 인간성을 상실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가 생명을 먼저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정치인들은 조력 자살을 미화시킨 ‘조력 존엄사’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어떤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생명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동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져야 할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사회 곳곳에서 생명 자체를 거부하거나 하찮게 만드는 “죽음의 문화”(『생명의 복음』, 12항)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시대의 인간 존엄성

예언자적 소명을 실천하는 가톨릭 교회는 과학 기술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최우선적 자리를 잃어버린 생명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한 개방성은 참다운 발전의 핵심”(『진리 안의 사랑』, 28항)이라는 진리를 모든 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호소합니다.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오늘날 효율성과 생산성과 창의성을 앞세워 기술과 과학이 인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도구라고 믿는 ‘기술 지배적 구조’의 위험성을 경고하시며, 기술을 단순히 효율성이나 생산성 또는 창의성의 논리만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 발전과 사회적 온전성을 위하여 쓰여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찬미받으소서』, 106-114항 참조). 또한 인공 지능 기술이 불러일으키는 ‘열광’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인간의 선’을 위하여 그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에서 한 연설, 2024.6.14.).

과학 기술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으며, 그 쓰임 방식에 따라 사회와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 기술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기회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찬미받으소서』, 107항 참조). 따라서 과학 기술 시대에 우리는 더 인간다운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간을 대체하는 데 기술을 쓸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써야 합니다. 특히 기술을 통한 인류 번영의 중심에 생명,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장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복음의 기쁨』, 198항 참조) 없이 생명을 중심으로 한 인간 사회는 결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과학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앞세워 지켜야 할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을 수호하며 희망의 표징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작은 이들”(마태 25,40)을 향한 돌봄을 실천하며 인류 공동체에게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는 희망을 전하는 길을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 아멘.

2025년 5월 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문 희 종 주교



2025년 '희년'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는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생명 운동 기도문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저희가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게 하소서.
아멘.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15> 성모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야 할 모범



가톨릭 신자들이 “성모님!”하고 마리아를 찾다 보면, 참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위치에 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모님을 성인 중의 으뜸이며 특히 교회의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공경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지, 성모 마리아 자체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님이 공경받는 이유는 천주의 어머니이신 위치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긴밀히 일치되어 있습니다. 또 마리아만큼 예수님 말씀의 발자취를 따른 사람이 없습니다.

중세 교회 때 과도하고 그릇된 성모 신심의 분위기는 한 때 성모님을 하느님 위치까지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역사를 살펴볼 때 성모님 공경에서 과장과 남용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성 요한 23세 교황은 과도한 성모 공경 행위나 신심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회칙 「구세주 어머니」를 발표하면서 ‘성모님께서는 결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임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께 ‘상경지례’(고결하고 특별한 공경)의 예를 포함합니다. 하느님께서 ‘흠송지례’(흠모하고 숭배)의 예를, 천사나 성인들에게는 ‘공경지례’(마음에서 드리는 공경)의 예를 표현합니다. 상경지례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송지례보다는 낮지만, 천사와 성인들께 드리는 공경지례보다는 높은 단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성모님 위치의 각별함과 탁월함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구원 역사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셨고, 은총을 통해 최상의 거룩한 품성과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심

가톨릭교회 신자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을 표현할 때 먼저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 어떤 특혜를 받고 어떤 생애를 사셨는지 정확히 배우고 이해해야 합니다. 즉 마리아를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분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께 대한 사랑과 공경의 표현으로

- ▶ 성모상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인사하기, 묵주기도 하기
- ▶ 성모성월과 묵주기도성월 행사 참여하기
- ▶ 성모님 관련 성가, 시, 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다운 사랑과 공경을 표현하기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마리아의 전구와 보호와 도움의 힘을 확신합니다.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뢰심을 가지며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리아께 부탁드립니다. 전구(轉求)는 성모 마리아나 천사 또는 성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교회의 어머니인 마리아께 자신과 자신의 전부를 특별히 봉헌해 매일매일 그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께 대한 특별한 신심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 가톨릭 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리아의 올바른 모습과 위치를 설명하고 마리아께 대한 사랑과 공경을 심어줍니다. 마리아의 성덕을 본받아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리아 신심의 중심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신심의 핵심은 ‘마리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아캠 회계보고

(단위: AED/소수점 버림)

구분	수입			지출			잔액
	내용	금액	비고	내용	금액	비고	
아캠 기금	전월 이월금	18,870	(2025년 3월 이월금)	공동체	1,199	(주보 퀴즈 당첨자 선물, 부활 전지 지행금)	
	후원금			감사	3,000	(아캠 전달 사제 부활 감사)	
		1,500		성우 활동비	2,000	(아캠 전달 사제: 4월)	
	납입금	아부다비	1,200	가난 기금	255	(4월 아캠기금 5% 적립)	
		두바이	2,400				
	기타 수입금 (이자 및 기타)						
		23,970			6,454		17,516
가난 기금	전월 이월금	5,851	(2025년 3월 이월금)				
	모금액						
		3,075					
		5,700					
		14,626			0		14,626
수입 합계		38,596		지출 합계	6,454		32,142

< 아캠 후원금 상세 내역 >

개인: (1) 김종선 크리스토폴 (2) 진춘언 요한보스코 (3) 허정열 아델라이데

개인(가난기금): (1) 허정열 아델라이데 (2) 방상윤 프란치스코 (3) 김화영 라우렌시오 단체(가난기금): 두바이 공동체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